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伊太利遂參戰

米國參戰은不可能?

一

伊太利는 마침내 十日 뭇솔리니首相의 對英佛宣戰布告와同時에 코르지카, 튜니스及 南佛리비에라 地方에向하여 進擊을開始하엿다. 브렌네르會談의 結果 參戰의 機會만 엿보든 伊太利는 諾威及 白佛國境서의 英佛聯合軍의 敗戰을 보고 獨逸의 勝利는確實하다 미더 今回 마침내 蹶起한것이다. 英國의 海上封鎖니 佛國의 阿弗利加에 對한 執着力의 强靱이니는 伊太利의 口實이오, 그實은 地中海를 湖水化하라는 伊太利의 宿望이 今回의 大戰을機會로 實現할 可能性이 加重해진때문이다. 伊太利는 南佛로 進入하여 東北佛로 侵入한 獨軍과 協力하여 佛國을 一擊之下에 擊滅하는 同時에 코르지카, 튜니스를 進擊하는 一方 地中海上의 英佛海軍根據地及 海上艦隊를 擊滅시켜 英佛을 完全히 分解하랴는 戰術인것갓다.

二

英佛로서는 獨逸一個國만을相對로 하고서도 氣息奄奄한 現狀이다. 萬一伊太利 마저 獨逸에 加擔하야 英佛에 挑戰한다하면 英佛로서는 一大苦戰이되지 안흘수업다. 勿論 地中海의 英佛海軍根據地及 艦隊는 伊太利를 壓倒할만하며 튜니스, 埃及, 시리아等에도 强大한 駐屯軍이 잇스므로 容易히 擊破되지 안켓지만 코르지카島, 말타島는 伊太利 空軍의 行動圈內에 잇스며 리비아, 에티오피아의 駐屯軍이 伊本國으로부터 遮斷되야 後援部隊가 올것에比하면 英佛軍은 本國乃至 濠洲, 加奈陀에서 오는데 長久한 時日을 要하고 또本國으로부터는 올수도 업슬것이다.

三

이에 잇서서 가장 動向을注目하게되는것은 빨칸의 諸中立國과 米蘇兩中立國이니 伊首相 뭇솔리니는 瑞西, 유고, 希臘等 中立國을 侵略하지 안켓다 宣言하엿스므로 即時 戰爭에 席捲되지는 안켓지만 十耳其는 英佛土相互援助條約에依하야 伊太利가 海軍根據地를 希領에建設하므로써 參戰키 쉬우며 民主主義란 政治的 友邦이오 現狀維持를 가튼理想으로하는 米國이 英佛의 苦戰을 그대로 傍觀할가도 疑問이다. 米國으로서는 英國又는 佛國에 後援部隊를 보내랴면 長久한 時日을 要할뿐아니라 獨逸, 伊太利의 空軍의 미치지 안는곳에 上陸하야할지니 西班牙나 阿弗利加 北岸으로서는 歸航途中의 危險이 不無하며 또 歐洲에大軍을 輸送하자면 大艦船이 必要한데 蘭印問題로 緊張한 極東情勢를 無視하고 布哇에集中한 艦隊를歐洲에 派遣키는 困難할것이다. 그러나 英佛의敗亡 即 民主主義國 凋落을 意味함을 아는 米國으로서 끗끗내 이것을 傍觀키도 困難할것이다. 全米國의敎育界, 操觚界, 實業界代表가 一齊히 對獨宣戰을 主張하고 로大統領이 對英佛積極援助를 聲明한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軍需品調達을 始作한 米國의 對英佛援助는 軍事的으로까지 援助하야 參戰케 아니치못할것은 第一次大戰이 證明한다.

四

그러므로 蘇聯은 伊太利가 빨칸을 攻擊하면 十耳其 [illegible] 蘇聯의 關係되는地方에 軍事 [illegible] 가장 [illegible]

伊獨兩軍協力態勢로 南北으로佛을席捲

佛國運命은風前燈火?

【伯林十日發同盟】伊太利는 驅逐及埃及方面에는 進出치안코 專혀獨逸과 協力하여 英佛攻擊에 勢力을 傾注할方針을 表明하엿는데 伊의參戰은 兵力不足을 嘆息하고잇는 英佛特히 佛軍에게 大打擊을주엇다 佛軍의 總兵力은百 個師團으로 推定되는데 로란드로爾線에서 이미十五個師團을 喪失하여 現在는 八十五個師團뿐이다 卽 現在마지노線에 二十個師, 北佛에 五十個師, 伊佛國境에 九個師를 各各配置하고잇는데 獨軍은 北佛戰線만은 百個師團二百五十萬의 大兵力으로써 猛進中이다 그리고 이에 對한 伊軍이 伊佛國境에서 北上의 氣勢를 보이고잇스므로 巴里를 中心한 佛軍主力은 南北으로부터 挾擊을 맛게되엇다 卽 세느河下流로부터 進出中의 獨軍右翼部隊는 巴里西方을 通過하여 大擧쏘-ㅁ方面까지 進出하고 南方國境으로부터 進擊하는 伊軍과 함께佛軍主力을包圍殲滅하려하고잇다 一方獨逸左翼方面에도戰機가움직이어 十日早朝부터 獨逸機械化部隊는 에느河岸의 로렌느로부터 란스方面에 對하여 突破作戰을 敢行中인데 同方面으로부터 突破한 獨部隊는 巴里地方과 마지노線의 連絡을 遮斷한後 마지노線을 後方에서 攻擊하여 마지노要塞線에據한 佛軍十個師團을 殲滅하려하고 잇다 獨伊는 攻擊目標를 佛國에集中하여 短期間에 佛軍의屈服을 꾀하고 다음에 對英大攻擊을 開始할 作戰인데 英佛의連絡이 遮斷되어 英國의援助를 全然期待할수업는今日 佛國의 抗戰力은 거의 問題가아되므로 그運命은 風前燈火와가튼 狀態에잇다

獨軍세누河渡河

佛軍도웨이간線死守

【巴里十日發同盟】佛軍司令部는 [illegible] 河下流某地點에서 세누河를 渡河하여 南岸에進出하엿다고 發表하엿다

十日午後獨軍先鋒이드디어 세누河를 渡河하여 南岸에進出하엿다고

【巴里十日發同盟】佛國防省 代辯者는十日佛軍이 아직 웨이간線을 死守一進一退를 反復하고잇는 旨를 左와如히말하엿다

一、二百萬의 獨軍南下部隊에對하여 我軍은 必死의 防戰을 하고잇는데 세느河를 渡河한 獨力한 獨戰車隊에게 左翼이 威脅되어 웨이간線 中央部는 漸次後退하고잇다

一、敵은全軍兵力으로써 我部隊後方連絡을 攪亂하려하고잇는 모양이다

◇…佛警官에게續續檢擧되는獨逸第五部隊

유고內閣改組

【베오그라드十一日發同盟】伊太利의參戰에依하여 드디어 戰火波 [illegible]

天皇陛下

地方狀況御視察

科學研究業績도天覽

【京都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에 際하여 天皇陛下께옵서는 御親拜를 爲하옵시고 畏하게도 勅使를 差遣하옵시와 [illegible] 御親拜를 마치옵시고 畝傍山陵及 橿原神宮에 御參拜를爲하옵시어 [illegible] 十一日畝傍山陵及 橿原神宮에 御參拜後 地方行幸은 하옵지 안코 오직 오바로 어떤行幸도 [illegible] 京都御所에 [illegible]

[illegible]

各山陵에도御親拜

【京都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京都御駐輦 第四日이신 十二日은 明治天皇의 山陵을 奉拜하옵시고 仁孝天皇, 孝明天皇, 英照皇太后, 昭憲皇太后의各山陵에 御參拜하옵신 [illegible]

不謹愼者를一掃

新軍律을實施

支那派遣軍總司令部 支那方面艦隊司令部布告

【上海十一日發同盟】支那派遣軍總司令部及 支那方面艦隊司令部는 今般大陸에서의 聖戰의 意義를 更히 一層 軍民에 徹底實踐시킬目的下에 새로必要한 軍律을 定하여 이를即日實施하기로決하고 十一日左와如히 布告를發하엿다

布告

日本軍의占據地域에서 左記事項을行하여 同地域의 治安을紊亂하고 軍의利益을害한者는 軍律에비추어 嚴罰에處하다

一、帝國의 支那에對한旣定政策을不法하게批判하는것

二、軍人軍隊의思想 又는民心을攪亂하는念慮가잇는 [illegible] 講演又는 集會를하는것

三、宣撫, 宣傳, 治安工作을 妨害하고 또는妨害할念慮가잇는 行爲를하는것

四、非常警備又는 警防演習 [illegible]

五、軍의業務를 [illegible] 하는것

六、軍官公吏又는 軍人或은 官吏의 名義를 不正히使用하는것

七、支那側政治機關 其他機關 又는 [illegible] 에屬하는 會社에서 勤務하는 職員, 其他一切職員으로서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利益을 收受하고 又는約束하는것

八、其他 人心을 攪亂하고 施行을爲하여 내린 官憲의 命令其他 措置에 理由업시 違反하는것

▲支那派遣軍司令部及 支那艦隊司令部談(要旨)

現地陸海軍은 大陸에서의 聖戰의意義를 更히軍民에徹底實踐시킴에 必要한 軍律을 [illegible] 今般 左의要旨를 布告하여 이에違背하는者는 我占據地域內의 日支國民이든지 또는 第三國人이든지 不問하고 嚴正히 軍律에 附하여 處斷하다 [illegible] 秩序를 紊亂하고 또는 無責任한 言說又는 利用하기 爲하여 一方 自己의 私利私慾에 汲汲하는者가 不少하다 [illegible]

▲中支交戰國軍에 한外務省情報部長談

[illegible] 支那에서 [illegible] 列國及比較的關係가 [illegible] 十一日午後一時外務省으로부터 左와如한 情報部長談을 發表하엿다

帝國, 交戰國에勸告

戰火東洋波及에重大關心

【東京電話同盟】歐洲戰亂의 東洋에의 波及에 關하여는 일찌기 帝國政府는 東亞에 立場에서 이에對하여 極히重大關心을 가지고 戰事의 勃發하자 昨年九月五日 支那에서 交戰國의 相互間 及帝國과의間에 不慮의 事態發生을 防止하기 爲하여 各交戰國에 對하여 勸告를 [illegible] 今般 伊太利參戰이 되자 五月二十日頃에서 帝國政府는 [illegible] 十一日午前十一時半 크레기駐日英大使 同十一時四十五分 앙리佛大使, 同午後零時四十五分 [illegible]

[illegible]

我精銳, 宜昌에突入

【○○十一日發同盟】午後 五時 我大野, 村井, 石川各部隊는 江岸으로부터 松川, 栗田部隊는 東山寺로부터 宜昌城을 向하여 突入 目下掃蕩中이다

【○○十一日發同盟】十一日午後 四時 敵의十字砲火를무릅쓰고 宜昌東門 [illegible] 我村田, 村井, 栗田, 立花 [illegible] 部隊는 宜昌市街를 向하여 殺到 [illegible]

리뷔에라進擊說

【伯林十一日發同盟】伊參戰과 同時에 伊軍이 리뷔에라地方에 進擊하엿다는 報道가 傳하여 있는데 伊軍이 어느方面으로 進出하엿는지 아직 不明이라고한다

伊太利軍事力

二百萬의陸軍

【倫敦十一日發同盟】伊의軍事力 [illegible] 五十隻 [illegible] 二百萬 [illegible] 五千機以上이라고한다

新西蘭 南阿聯邦 對伊宣戰布告

【웰링톤十一日發同盟】뉴-질랜드首相은 十一日 午前十時三十分 伊太利에對하여 宣戰을布告하엿다

【프레토리아(南阿)十一日發同盟】南阿聯邦政府는 十一日 伊의對英佛宣戰에 依하여 南阿聯邦은 伊太利와의間에 國交를斷絶하게 되엿다고 發表하엿다

米中立法을伊國에適用

【華盛頓十日發同盟】 [illegible] 伊의參戰에 依하여 [illegible]

伊蘇, 事前에諒解成立乎

【莫斯科十日發同盟】 [illegible]

"伊太利參戰"은 獨逸의負擔

英情報相勝利의確信强調

【倫敦十日發同盟】英國情報相은 十日夕頃 伊太利의 參戰에對하여 [illegible] 이다 그러나 伊太利는 戰爭의 聯合國에 [illegible] 우리의 勝利를 [illegible]

小林總督歸任

【東京電話同盟】滯京中의 小林臺灣總督은 臺灣統治 其他所管事項에 關하여 中央部와의 打合을 마치엇스므로 十一日午後 三時 東京驛發歸任의 途程에올라 途中 熱海에 들러 十二日正午 神戶出帆의 高千穗丸으로 一路歸臺하엿다

光榮의優賞九名

第十三回論功行賞

今回論功行賞의 恩典에浴한者는 昭和十三年一月十九日 부터 昭和十五年一月二十日까지의 期間에서의 戰死戰病死殉職等의 死沒者로 그人員 軍人二百九十四名 軍屬十一名 總人員三百五名인데 그中金鵄勳章을 授與바든者는 二百十二名이다 모두 特히武勳을세워 戰史에 빗나는 功績者인데 至今殊勳者中의 拔 [illegible]

▲功五旭七 海軍整備兵曹長 志村運平

▲功五旭七 海軍一等整備兵曹 [illegible]

▲功四旭七 海軍五等少佐 細川直三郎

▲功四旭五 海軍少佐 森千代次

▲功五旭七 [illegible]

▲功五旭七 海軍航空兵曹長 川崎昇

▲功六旭八 海軍二等兵曹 野坂湧人

▲功五旭七 海軍一等兵曹 塚本治郎

▲功六旭八 海軍三等兵曹 中島睦夫

四相會議

【東京電話同盟】十一日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서 四相會議를열고 米內首相, 有田外相, 畑陸相, 吉田海相等出席하에 歐洲戰局의推移에 伴하여 帝國의 對策에 關하여 協議하엿다

[illegible] 御親拜하옵신다 이날 陛下 山陵에 行幸하옵신다음 英照皇太后山陵에 御拜하옵시고 午後一時再次 御出門 [illegible] 明治天皇山陵 [illegible]

今日興亞院會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二日午後二時 首相官邸에서 臨時興亞院會議를 열고 新來內首相, 畑陸相, 櫻內藏相 柳川 總務長官, 鈴木政務部長等이出席하여 帝國政府와 新國民政府와의 交涉의 基本的條項에關하여 最後的決定을 하기로되엿다 그리고政府는 右興亞院會議의 決定을기다려 오는 十四日의 定例閣議에 附議하여 正式承認을求한후 米內首相이 參內奏請하리라 一切手續이 完了된다

倫敦에"反伊暴動"

【倫敦十日發同盟】伊太利參戰으로 阿部特派大使에 [illegible] 英國民의反伊感情은 一層激昂하게되엇다 十日夜 倫敦의 伊人居住地全域에 反伊暴動이 勃發하여 倫敦의 伊人商店에 投石하여 琉璃窓을 破壞하고 伊人經營의 레스토란數軒을 破壞하고 [illegible] 經隊가 鎭壓하려 하엿는데 [illegible] 他에서도 [illegible] 하엿다고한다

敵焦土戰術에 責任질수업다

【○○十日發同盟】漢西作戰의 進展에 依하여 敵은 各戰線에서 潰滅的打擊을 받고잇는데 敵은 도다시 戰術的焦土作戰에나와서 襄陽, 宜城, 荊州, 沙市等 都市地方에서 放火하고 良民을 殺傷하고 [illegible] 지게하엿슬뿐아니라 이때 三國權益에도 相當한損害를 [illegible] 이에對하여 我軍은 [illegible] 同時에 決死的消火作業에努力하는 良民의 救濟, 第三國人의 保護에 努力하고잇는데 敵의焦土作戰이 第三國人의 權益破壞에 依하여 我國과第三國과의 關係를 惡化시키려고 企圖하고잇는것은 明白한일이다 我軍은敵의 劣惡한 戰術에 依하여 發生한 第三國權益의 損害에 對하여는 我軍은 何等責任을 질수업다는 態度를 明白히하고잇다

글을살리는 書簡쓰는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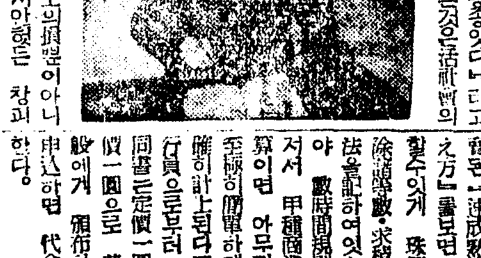
學校를卒業하고도 [illegible] 便紙도쓰지 못하고 [illegible] 手紙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 東京書院에서 發行 [illegible]

바른 簿記하는法

簿記하는法은 그러케 어려운 것은아니다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 東京書院에서 [illegible] 定價一圓五十錢 [illegible]

珠算이서 둘러서 他人압헤羞恥를當해

某大實業家의 [illegible] 東京書院에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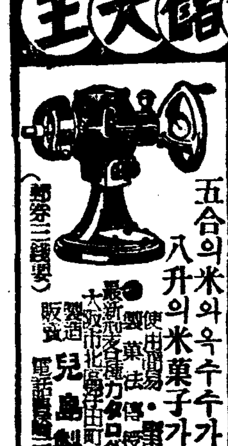
바른 言語使用法

말상 「발음」을써야할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 東京書院에서 [illegible] 定價一圓五十錢 [illegible]

雄辯의힘

公開된演說의秘訣

雄辯의時代왓다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 一 東京書院에서 「雄辯術과演說法」 [illegible]



金儲大王 リード式穀物膨脹機

五合의米와 옥수수가 八升의米菓子가된다

製造販賣 兒島製作所 大阪市北區堀田町八番地 電話 [illegible]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工具類製材用品直輸入商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

新案 食台 カリンプ印

家庭用金物 硝子食器·荒物·雜貨

大阪市西區北堀江通六 田中新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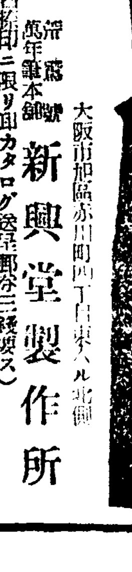
冷소면, 冷우동, 冷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月美人印 からし 製造本舖 合名會社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各市町村ニ一店限リ特約連鎖店募集ス 營業案內書送呈三錢切手ヲ要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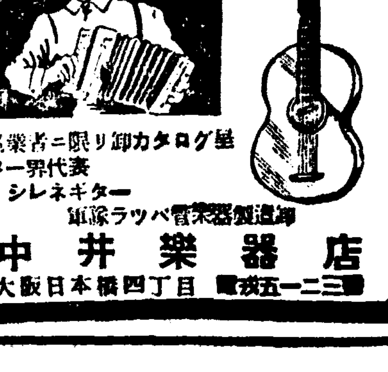
メリヤス洋品雜貨 格安品專門製造卸 大阪市此花區上福島中二丁目八四番地 丸絲有路商店

帶皮 ズボン吊 ガーター 學生鞄 ボストンバック、

發賣元 大和屋商店 大阪市浪速區河原町 電浪三九八六番 カタログ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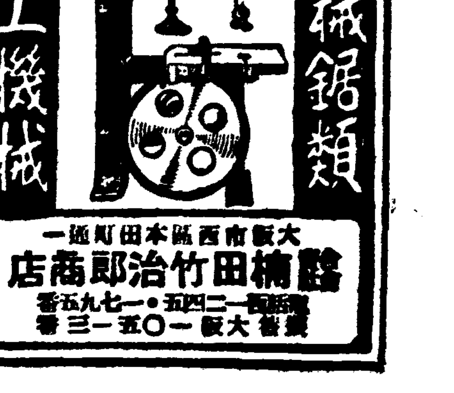


高級 萬年筆製作卸 新興堂製作所 大阪市旭區赤川町四丁目



琴風手ロトエアピ リード

中井樂器店 大阪日本橋四丁目 電戎三二一五一番



製材機械鋸類 各種木工機械

諸機械竹田治郎商店 大阪市西區本田町通一 電話 [illegible]

歷史는지구진審判者?

征服者奈翁誕生地에 伊軍雪辱의進軍

戰火속에든"코르시카"島面貌

이태리의 독재자「뭇소리니」수상은 십일일 드디어 사자후(獅子吼)한마디로 영불에선전포고를 하는동시에 남불「리부에라」를견제하면서 지중해(地中海)로 나아가「코르시카」섬과 북아「아프리카」의 불령(佛領)「튜니스」로 진격을시작하고야 말엇다。 이태리의 참전은 구주동란의 불길속에새로히 기름을 부은셈으로 이로써 전체주의(全體主義)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결전은 본격적대전으로들어가는다。「파리」를격하기 겨우오륙십키로까지 처들어온 독일군의 전격작전에 떨고잇는 불란서가 인제는또남쪽에 이태리를 지고 어떠케 차복할것인가? 그러나 이태리는 불란서 본토로 처들어가는 전략을 택하지안코 오래동안의 숙망인 지중해의 해상권(海上權)을 손에너허 남쪽으로 버더나가는길을 찾는것이다。

지중해 제패(制霸)에 불타는「뭇소리니」의야망에 먼저희생되려는것이「코르시카」와「튜니스」다 한때구주천하를발아래 놓엇던 불란서의영웅「나폴레옹」의출생지로 너무나유명한「코르시카」섬이인제「뭇소리니」의 말발굽에짓밟히려는 현하에 떨고잇는것이다 역사의유전한 흥망을 돌이켜 올라간다면 일천칠백육십구년에 이섬「아작시오」에서 난 일대의풍운아「나폴레옹」이 불란서혁명의때를만나 [illegible]

나 세계정복의웅도를품고 혁명정부의 장군으로서 [illegible] 백구십사년 두자아이에 [illegible] 이태리를 토벌하여 드디어그해 유월 「밀라노」에 [illegible]

滿浦에暴風雨

下市에서商店流失 高山面엔四名死傷

交換手아가씨들의말씨고약한건

大部分이初年兵인까닭

中央電話局에서"懸賞親切週間"을設定

天然痘又發生

南北에高低를두어 勞働者初賃金決定

需給調整關係와各方面影響을考慮

총독부에서는 십일오후두시부터 총독부재산회의실에서 임금통제위원회전문위원회(賃金統制委員會專門委員會)를열고 미성험노동자의초임금에 대하여 자문안(諮問案)을 부의하엿는데 원안대로가결되어 근일중 발표하기로되엿다 [illegible]

一、機械製造事業
二、器具製造事業
三、金屬品製造事業
四、船舶、車輛製造事業
五、金屬製錬事業
六、鑛山令의 適用을받는鑛山

不當利得取타가 警察에檢擧되어

酌婦逃走

街路樹를사랑하자

一部府民의無思慮한取扱과虐待로因하여 約十八%가傷處입고枯死

慈山水組 給水開始

府會議員女息이 男便을殺害

深刻한종이饑饉

用紙不足으로困難밧는官廳 이때문에事務가停滯

漁組職員도優遇 昇給賞與制改正

驚異的인貯蓄記錄

五月末現在의預入高一億一千百三十餘萬圓 事變前에比하여八割四分激增

協和會縣本部에 坂田達也氏着任

朔州에雨雹 菜蔬等全滅

至極한母性愛!

重病들은아들을憐憫 七十高齡의老母漢江에投身自殺

鐵道自殺未遂

儒道會總會로 一齊創氏決議

宣川과麗水두곳서

한곳에두事故

日用必需品의統制

配給과價格을一層强化

廿一日產業、商工課長會議서討議

一、生絲、食料品配給統制의件
二、세멘트配給統制에關한件
三、纖維製品配給統制의件
四、朝鮮의 고무靴配給統制에關한件
五、朝鮮의 肩 고무配給統制에關한件
六、家庭用炭의配給統制에關한件
七、價格等 指定에對하여 各道間의連絡徹底에關한件
八、遊休物資實際運用及 物資의活用에關한件
九、公定價格의是正及 違反者의 處罰에關한件
一〇、朝鮮砂糖配給統制에關한件

中等野球리그 中央軍이得勝

中央	一四〇〇〇一〇〇〇	6
京師	〇一二三四五六七八	1

中等庭球리그戰績

夏季學生籠球 普專、法專各勝

普專 63 (2934 / 2313) 35 大東
法專 37 (2314 / 1610) 26 鐵專

日米濠三國間의 汎太平洋卓球開催

京都大學野球리그 專大의優勝確定

關西三大學水上 關學大軍이優勝

今日 天氣…晴後雲

男子의空念佛

惡癖은今日부터斷乎禁止하라

東京眞空療法研究所

不正한眼鏡은視力을害한다

눈에合致한「렌-스」난設備가完全한專門店에서製調함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公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京城帝國大學御用 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 三三七五番

支店 平壤府本町六 大學堂眼鏡店

乞願! 地方出張販賣는아니하오니 弊堂의名義를僞稱하여行商하는奸商에게欺瞞치안토록注意하시기伏望하나이다

◇生徒募集 京畿道自動車講習所

男子早漏 大學藥院

	朝	晝	夕	每食直后
1日	二錠	一錠	二錠	止膿止痛
2日	二錠	一錠	二錠	淋絲消失
3日	二錠	一錠	二錠	〃
4日	二錠	一錠	二錠	完治

淋疾特效 サッタリム

發賣元 新興製藥所 京城府

幸福を求める女性方へ

新發明의婦人病治療法

全快者가만흔婦人科藥

新製 美神丸

無代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堺筋 本舖 宮內善進堂

中部版

青陽郡春繭共販
九日부터兩處서實施

【靑陽】 충남청양지방은 [illegible]
靑陽邑內 六月九日부터
定山面內 六月十日부터

闇賣의白米積載船
延白郡에서仁川가는途中發見
江華署에서引致取調

【江華】 지난八日 황해도연백군(延白郡) [illegible] 백미[illegible]가마니를싣고 인천방면으로 밀매코자 항해하던 도중 강화군양사면철산리(兩寺面鐵山里)압바다를 지나다가 강화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현품을 몰수당하고 화물주와 선부는 공무서로 다려다 취조중인바 쌀이업서 애쓰는강화도에 이만한수량의 예상치안흔 수입을보게된바 군일동 강화군배급조합의 손에의하여 처분하리라고한다

盈德神社神殿改築奉賛會發會式

【盈德】 경북영덕군내(盈德郡內)에서는 십여년전부터 신사가 건립되어 왓스나 건물도 협착하고 기타여러가지관계로 신축코저 현안중 마침 황기이천육백년기념사업으로 영덕신사 신전(神殿)을 개축코저 지난오일오후이시부터 영덕면회의실에서 면민유지 동신사총대 사십여명열석으로 영덕신사신전개축봉찬회발회식을 집행한바 [illegible] 역원선거와 규약통과며 [illegible]

一、改築豫算總額五千四百九十四圓也
一、其他
一、會長 金英漢 [illegible]

寶城地方에
井戶水不足

【寶城】 전남보성지방에는 오래동안 한발의 계속으로말미아마 군내각처의 정호수는 거개말라 부터 일반은 식수에곤난이만타 고하며 아프로 일주일이내에 비가나리지안으면 전부 말를지경이므로 군당국의 이에대한대책을 강구하여주기를 요망한다고

麥適期刈取勵行
忠北道愛國班總動員으로

【忠北支社發】 충북도에서는 농여 금년 [illegible]

麥適期刈取週間
知事産業部長이先頭에서서
忠南서十日부터實施

【忠南支社發】 [illegible]

青陽地方에
牟麥이豊作

【靑陽】 충남청양지방은 작년한해로 [illegible]

親母를毆打致傷
平澤署에서檢事取調

【平澤】 지난 [illegible]

七校合同訓練盛況

[illegible]

廿萬瓩生産目標로
松脂採取積極奬勵
全南道의生産高는全國第一

【全南支社發】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송진(松脂)은 [illegible]

郡對抗叺織競技
審査成績을發表
忠南道農會主催로

【忠南支社發】 [illegible]

農業報國週間
茂朱郡의各種行事

【茂朱】 농업보국주간을 [illegible]

一、强調事項 1、時局認識의徹底 2、生産擴充 3、消費節約及貯蓄
二、實施時期及方法 1、實施期間 自六月十日至六月十六日 2、趣旨의周知 各面에서는六月九日 振興會長會合을 開催하는同時 部落振興會單位로六月九日밤 月例會를열고 趣旨와實行方法을協議하기로되엇다
三、週間實施要項 1、麥의適期刈取 2、苗代除草及害虫驅除 3、地下水及河水利用 가、井戶堀鑿 나、河川堀下 다、堤堰修理 4、稻의追肥期引除草 5、桑田肥培管理 6、叺織勵行其他
四、實行機關 週間中 實施事項의適確한實行을期함으로 郡面其他官公署職員으로 督勵班을編成하여 各部落을分擔하고 實地指導督勵하기로되엇다

全北巡査教習生
修業式

【全北支社發】 [illegible]

忠南中等校長會
八日道第一會議室서開催

【忠南支社發】 [illegible]

密酒盛行
河東稅務署管內

【河東】 경남하동세무서에서 [illegible]

十年以上選手
二名表彰
江華郡體協에서

【江華】 강화군체육협회에서는 [illegible]

고무신工場監視
仁川署嚴重取締方針

【仁川】 인천서경제계에서는 [illegible]

盈德 [illegible]

土地景氣업서저
料亭과妓生에큰打擊

【仁川】 경성인천사이의 작년도부터 일대활기를띠던 토지경기가 요즈음와서는 전연매매가업거니와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으로서도 자금대출을 제한한다게로 땅갑시 폭락되러지므로 인천부내의 각요리점에서도 한때는토지경기로 하루수천원의 매상고를 보든것이 이제는 땅거간들을 구경못하여 각요리점에서도 동정이업서 비명을 부르짓거니와 이에 인천부내의 일백삼십여명의 기생들이 서리를마저서 요즈음은 일백삼십여명중의 기생에 이십여명이 채못나가서 빗어든기생는 빗을못갑는다는비명을 부르짓고잇스며 물까는오르고 생활이막연하다고한다

時局對策委員會

【漆谷】 [illegible]

空氣銃으로殺人

【槐山】 [illegible]

不德家主召喚取調
집세올릴려고各種手段弄絡
仁川警察署에서探知

【仁川】 집세나 땅세는 소화십삼년말 현재는 더밧지못하게되엇는데도 악덕가주들이 집세를 올려서 법령을무시하고 일반경제에 막대한 영향을끼치게되므로 이에인천서 경제계에서는 악덕가주를 적발하는대로 엄중한 처벌을 나리게되엇는데도 불구하고 부내서경정(西京町)에잇는 모가주는 중정(仲町)십번지의 자기소유의 집여섯채를세를주엇다가 작년여름에 집세를 [illegible] 원씩이나 올려차가인측이불평을하게되자 [illegible] 이에인천서에는 이를탐지하고 [illegible] 지난십일오전에 전기가주를소환하여 취조중이다

熊川聯合振興會
地方功勞者表彰式

【熊川】 [illegible]

石炭所要量
木浦서도全面的調査

【木浦】 [illegible]

撤水車使用要望

【寶城】 [illegible]

筏橋에勞力不足

【筏橋】 [illegible]

槐山郡內三面長
間島視察次出發

【槐山】 만주국간도성(間島省)의 [illegible]

等級標準을나추어
全南叺出廻漸活潑
그러나割當量엔아즉大不足

【全南支社發】 [illegible]

某郡守의實子라自稱
巨金詐欺한假醫師
犯人은禮山警察署서嚴探中

【禮山】 [illegible]

密陽에怪屍體!
檢屍結果他殺로判明
警察、犯人搜査에全力

【密陽】 [illegible]

豪遊中怪青年은
큰窃盜!
釜山署서檢擧取調

【慶南支社發】 [illegible]

面書記資格試驗
茂朱郡서施行

【茂朱】 [illegible]

假刑事
木浦署서逮捕

【木浦】 [illegible]

回甲宴會費를
貧民戶稅代納

【榮山浦】 [illegible]

扶餘神宮御營造工事
近近着手키로決定
奉仕隊宿舍食糧等準備도完了

【忠南支社發】 [illegible]

地方人事

▲多久氏(京畿道社會課囑託)[illegible]
▲李貞遠氏(每日新報社會部記者) 同上

鐵道通行防止週間에
違反二百六十件
大田鐵道事務所管內만

【全南支社發】 [illegible]

◇◇◇ 빨래하는處女 ◇◇◇ 二

清楚·潤澤한머리를맨드는

十分間洗髮法

더운물 한주전자만 있으면 어느곳에서라도 손쉽게씻을수있읍니다

1 花王샴푸ー를、가루가되게잘부신後 범벅을맨드러서 더운물로감은머리에바르고

2 두손으로 머리바탕에손질을하면 샴푸ー의거품이나므로

3 그거품으로서 머리끝까지잘씻처면 때와비듬이 빠저버리므로 저음에는 더운물、다음에는찬물로 행기시고

4 그다음에는 마른手巾으로물을닦어버리면 清楚하고 潤澤나고 아름다운머리가됩니다

長篇小說

青春茂盛 (76)

李泰俊 作 鄭玄雄 畫

과도는숙지까지(四)

치원은 얼른 대답하지 안는다. 대답대신 코 고는 소리를 드렁 드렁 낸다.

「코 괘니 골든 축중 생겨요 벌루……」

그래도 치원은 드렁소리만 더 낸다.

「선생님 정말 잠드심 그런코소리 아닌건뭔」

치원은 그제야 히죽이 웃고 말대꾸를 한다.

「어떠케 그런 소리 아닌지알우?」

「들으니까 알쇠요」

「내가 잘땐 은심두 잣지어제」

「내가요?」

「그럼」

「참! 남잔 몸뚱이가 큰만치 잠두 만나봐!」

「어쩌다 내가 지쌔루 코고는 소릴 한번 들은게로군」

「어쩌다요?」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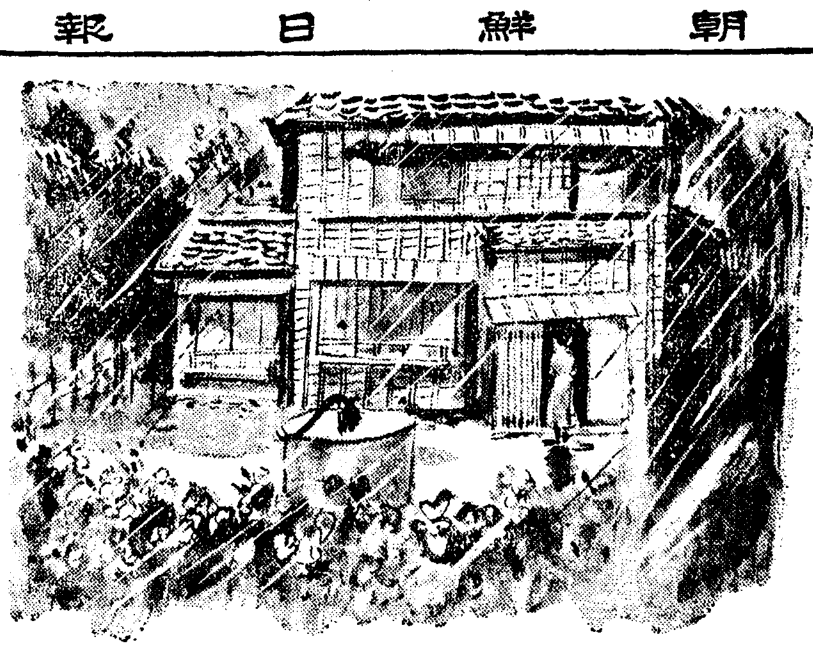
「늘 먼저 잠드시던」

「본거지던」

그러나 밤은 흘아오는것이를 이 다가치 숨겻다. 밤은 두사람에게 두사람끼리만을 보고두사람끼리만을 생각하는데 더열중하도록 두사람의 주위를 두터운 설벽으로 둘러서 주는것 가텃다.

그러나 또 밤은 늘 어기지 안코 밝어주엇다. 날만 밝으면 햇볕 가튼히 그 첫신혼의 갓턴 정욕의 세계에서 벗어날수 잇는것이다. 만일 하로만이라도 이들의 창우에 아침 햇볕이 비최지 안코 밤 그대로가 계속된다면 이들의 건강한 정신력으로라도 이들사이의 천후의일선을 끗까지 보장해내리라고는 단언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또 밤은 새여도 안젼한 낫이 아닌 날도 업지안타. 풍우가 심히 뿌리어서 판장 그대로인 『아마도』를 열어 노치 못하는 아침은 어둡기도 밤가틀뿐아니라 일어나 나가밥을 짓는것도 귀찬어진다. 이불을 게키면 춥기나 하고 일어나야 갈데도 업고 그래실파나



「숨소리 들리는것두 모를가요 뭐?」

「내가 먼저 잠드는줄 알면 무서웁디까?」

「조금……」

「그런 신경으루 인제 매국끼정 어떠케 가누?」

「사람이 단둘이 살다 하내먼저 죽으면 어떨가요?」

「내가 잘드디까 죽으겻 갓틈디까?」

「그러친 안허두요……」

하고 은심도 웃는다.

「무섭거든 날 깨지?」

「불러두 모르시던데」

「와서 흔들지?」

「가진 안허요」

「지척이 천리라드니!」

「바다가 새에 잇거니허세요」

「그럼 어려케 대화허는건 무선전화가?」

「전파가 전해주긴 마찬가지니까 역시 무선전화조 뭐」

「인제 정말 태평양을 우리새에노케 돼두 늘 무선전화 슬테요?」

「……」

「응?」

「그만 주무세요」

「왜?」

이번에는 은심이편에서 잠자는 숨소리를 크게 내어본다.

「아-주」

그러나 은심은 더 대답하지 안코 정말 자버리긴한다. 치원은 져도 모르게 한숨을 후- 몰아 쉬인다. 빗소를 팍 웅켜쥐어본다. 밤은 살이 까김것처럼 괴롭다.

먹고는 그대로 누어 그대로안겹 잠지는는 다친재 어제밤삽들기 전처럼 이야기로 승기는것이다.

이날도 풍우때문에 『아마도』를 열지 안흔채 자리에 누어잇슬 때엿다. 첨짬문을 누가와 뚜드리는소리가 난다.

『우편인가?』

하고 치원은 잠옷자락을 단체전부가 아니엿다. 문박게 나타난 사람은 번질한 『레잉코-트』를입고 우산을 바든 한삼집 되엇을가 말앗슬가한 청년이다.

그는 우산을 접고들어선다.

『실례오르지다……』

말투이 서양사람이 하는조선말가다.

『어데서 오셧슴니까?』

『미쓰원고 게시머니까? 이곳에?』

『고은심양 말슴입니까?』

『얘-쓰. 나 미국서온……』

『네-? 그럼 은심양 조혼되시는?』

『조혼? 아이돈노-』

명함을 꺼내다 하더니 청년는 명함을 영어다.

『미스터-쪼-지·함……』

『네이, 내가 쪼-지함이오올시다. 미쓰-원과 결혼한……아! 아니오 약혼한 사람이올시다』

『……』

치원은 그만 잠옷처럼 빼빼해진다.

新劇의 "方向"

文吾

▼…벌써 금년도 중턱을 넘어섯다. 잡지관계사람들은 벌써 상반기 결산기사를 거더 모토기에 눈코뜰사이가 업다.

▲…그러면 금번 극단의상반기에 잇서서 우리는 우선 무엇을 기록하지 안흘수 업슬까. 그것은 말할것도 업시 신극단체의 연대적인 진체이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롤치안흘수업슬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로는 이러케 『신극단체의 진체』니 [illegible]

趣味 娛樂

海外進出의 "映畫"委員會 輸出振興策을 協議!

내무대신(內務大臣)의 영화자문기관인 영화위원회(映畫委員會)에서는 전번에 『농산어촌영화대책(農山漁村映畫對策)』에 다음으로서 어번에는 새로이 지난오일오전아홉시부터 내상(內相)관저에서 『일본영화의 해외진출에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엿다.

×……×

그리고 아옥(兒玉)내상 산사무관 학견우보(鶴見祐輔) 성호사랑(城戶四郎) 국지관(菊池寬) 수지(水池)영화과장 등 제씨의출석아래 일본영화의 해외수출진흥책에 대하여 협의한일이잇섯다.

×……×

그뿐아니라 이미 일부에서는 실시되고잇는 재외방인을 목적으로하는 적극적인방면과 순외국인을 상대로하는 구미그외의 지역적대책과 및지금히필요로하는 동아적인 수출영화등에대하여 여러가지각도로부터 검토를가엿는바 구체적인 답신서는 다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되엿다.

石油를마시면 오래산다(?)

珍海外閒

『모-데셀트』교(教同盟)살기도때 오래 살아서 일백하고도 세 [illegible]

▲「딕스」의 活躍

R K O에서 활약을계속하고잇는 「리챠-드·딕스」의 신주연영화는 「레스·곳도위스」감독의 「하늘에대한사나이」로 결정하엿다는데 상대역으로는 영국으로부터온 『웬디-바리-』가 활약하리라한다.

▲「존·포-드」의 新作

「존·포-드」감독은 「역마차(驛馬車)」와 함께 「존·웨인」 「토-마쓰·밋첼」의 주연으로서 「유-진·오닐」의 원작 「긴항로(長い航路)」의 촬영을시작하엿다.

童心園主催

童話의밤

15日밤本社講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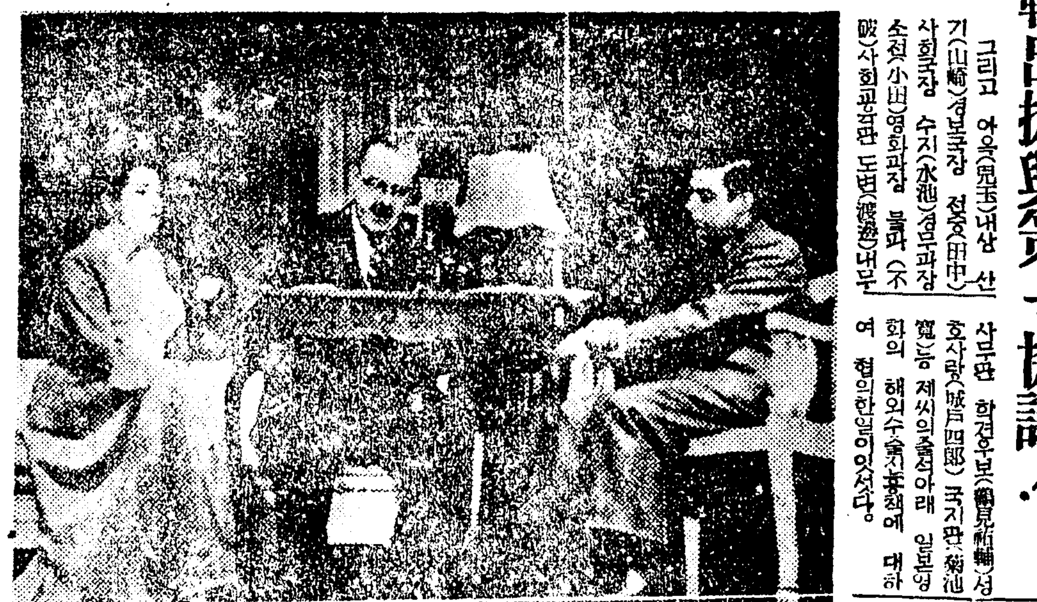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정조(情操)교육을 목표로 내세우고 오로지 어린이지도에 전심하고잇는 경성동심원(京城童心園)에서는 십오일밤 오후일곱시반부터 『동화동요대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는바자세한것은 다음과갓다.

▲童話 盧良根 崔仁化 朴興珉 先生

▲童謠 孫仁順 金順子 高敬子(特別) 本園童謠部員

▲舞踊 本園舞踊部員 (金東振氏新作)

戰爭劇『밤은안오리』舞臺面……②



(上)은 제삼경 (下)는 제사경

野談

壯士의 恨 ⑥

참아 말끄를 내지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이리저리 훔치며 코등을 실룩실룩하고 두눈을 끔벅끔벅하고 얼마동안 슬픈마음을 진정하더니 겨우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것참 황송하외다. 제생각만하고 이런꼴을 보시게해서!

『뭘 별말을 다하는구려. 파하 마음을 상치말고 천천히 이야기나하우. 뭇슨사정인지는 채모르겟스나 만일 내힘으로 할만한 일이면 수화라도 피치안코 보아드릴테니 어서 근심말고 마음을 진정해서 말해 보우. 응? 어서 김생원……』

용이는 눈물 어린 눈으로 일중군을 처다보며 억지로 우슴을 띠우면서

『네……』

하고는 다시 점돌이를 바라보고

『참 점돌아. 아니야 인제 이람을 내고보면 점돌아 하고 부르다니 도련님 여보시우 이때까지 점돌아 점돌아 어데서 저데서 하고 함부루 한것을 다 어찌알지말고 내 애기를 잘들어서 도련님도 기피 생각해야지 저 양반님 말슴도 다 들엇지만은 도련님이 내아들노릇하고 평생을 어무한 시골구석에서 마처버려야 할까 어찌해야 조흘까 생각해보아요. 조금 인만하면나도 자식하나업시 두릅은 어기 서로 마주처다보고한 숨으로만 세상을 보내는테어떠케 딴생각을하겟소이까만은……』

점돌이도 뚝박게 이말을 듯고 보니 그게무슨말인지 정신이 얼떨떨해서 온두커니 안젓슬뿐이요 일중군도 의외의 말을 들을때에 『올치 이게 무슨까닭이 잇는일이로구나 그러면 어점

돌이가 용이의아들이 아니로군……』

하는 생각으로 자기도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여보 김생원 지금 그말을들으니 이애가 김생원의 친아들이 아니로구려……』

『네 그럿소이다. 그러기에 아까도 말슴 여쭌대로 이것은 꼭양반님만 아시란게 지요 하니 제말슴을 잘들어보시게요 네』

다시 김개한숨을 내어쉬고 기침을 컥컥해서 음성을가다듬은 용이는 눈을 꽉감고 혼자 입속의 말로

『아하 천지신명도 무심하시지 이놈가치 팔자가기박하거든 자식며색을 지여주지마실것이지 자식며색이 라리 어놈에게 알마신 못생긴 자식을 이름지어주시거나 그러치 안코면 저렴흔 처지로 태내실것이지여 째서 하필 권녀에게 태여나게 햇슬까 아마 씨는조흔 씨인가 보도라마는 그양반도 매정한이지 아모리 섬 계집의 몸에서 낫기로

서니 어쩌면 자기혈육을 남의 파가는 팔자 사나운 놈에게 주다니 그나 그뿐인가 공부도 시키지 말고벼슬도 시키지 말어달라고 홍. 하는님도 신령님도 야속하시지 홍!……』

하는 용이의 한숨소리에 일중군도 무슨 곡이나 꾸다가 깨인듯이 눈을 번쩍들어 용이를 바라보고

『응 그래 그만하면 대강 짐작은하겟소만은 저애부모는 어디 누구란말이요기위 말이낫스니 말이지 좀자세히 들려주오 나도 대강짐작하는 배잇고 또는 생각하는바도

잇스니 그러한만하지 말고……』

용이는 지난간 십여년동안 일을 꿈과가치 눈앞갈고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어

늣듯 정신이 호롱하여지자기에 신세한탄과 점돌이의가련한정경을 잡고대한숨이흘러자중얼거리다가 일중군이홍분된 목소리로 다시말을재촉하는말에 깜박 정신을가

다듬어 점돌이가 이세상에 나오게되던일이며 란생후십삼년동안 지내온것을 다음부가치 이야기 하엿소.

서울로 입담어 동국하신지얼마아니되어 서울서 홍참판이라는 양반이 진도섬으로귀양을 왓는데 그이름어무엇인지 또는 무슨일로 귀양을 왓는지 알수는 업스나 어쩨던지 나라에 죄를 짓고 멀리귀양사리를 온것은 사실이엇다. 그러나 홍참판이라는 양반은 얼굴이 백옥가치희고 동탕하게 잘생긴 중년비남인데다가 행실이 도저하고 또 학식이 풍부해서 귀양온지 일이년동안에 그신문장 사람은 물론이요 우수영·근처에까지 소문이자자하게되엇다.

그리해서 자식가진 사람으로 글자나 가르처서 장래에 공명을 엇게해보려는 이는 다투어 홍참판을 차저 사괴고 자식을 부탁하엿다. 홍참판은 죄인의 몸으로 여러사람의 호의를뭇다던지 또는 남의 자식들을 모하 무엇을 가르친다는것이 온당치 못한일이라 생각하고 일체 사양하고다만 후대하는 여러사람들에게 마음것 감사한 뜻을표하엿을뿐이엇다. 이럴수록홍참판의가장 온건하고 진실한 풍행을 사모해 따르는이가 만헛다. (계속)

米新作戰爭劇 밤은안오리오

★…이 섬쟁극의권작자 『로버-트·셀웃드』는 극히최근에 속하는재기발랄한청년작가다.

★…그는이 『밤은안오리』에서도 그러햇지만 언제나 방대한 기대문에 『스케일』을 구성한다. 그러타한 『오-케스타』를늣는거와

[illegible]

第三景

때는입마가 지나간다. 구타파의 풍운은점점 협악해간다. 거기따라 『발코네』일가도 생활의 동요를 느끼게 된다.

第四景

드디어 『러시어』와의 싸움이 폭발된다. 『어릿·빌코네』의 젊은 아들 『조국, 『핀랜드』를위하여 싸우는것은 마땅히 나의 책임이라고 외치게 된다. (계속)

趣味講演

朝鮮떡게모이야기

柳子厚

떡게는 원시대고사대적부터의 흥미개를 기원으로 [illegible]

對話劇 (十二日午後六時三十分)

한알의쌀

金泰哲 金七淑

[illegible]

라디오

▲博士가 된 「크롬웰」

[illegible]

12日(水)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日用品時勢 『橘工맨드르』 ◀正午(東)時報 오늘아잠두실것 ◀午後零時五分 輕音樂(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여름飮食몃가지』 趙慈鎬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對話劇『한알의쌀』 金泰哲 金七淑 ◀同七時 支那語講座(一八) 李相殷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趣味講演『朝鮮떡게모이야기』 柳子厚 ◀同八時三〇分 雅樂―李王職雅樂部員 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 一、堯天舜日之曲(細樂) 二、鳳凰吟(管樂) 指揮 金千龍 ◀同八時五〇分 西道歌謠 一、孔明歌 二、雜歌 三、雜歌 朱蓮花 李鶴仙 ◀同九時五分 라디오小說『臨終의約』 金健編 卜惠淑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第一放送

◀一二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 宋今璇

十三日(木)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오늘아침들러두실것 ◀午後〇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齒牙健康』 金喆鏞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連續이야기『六男妹』(一) 張孝瑋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精動時間『五億의貯蓄目標』 ◀同八時一〇分 新作이야기『시집살이』 洪興龍 ◀同八時三五分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赤壁歌 方應叔 鼓手韓成俊 ◀同九時 라디오드라마『흥의녀』 李白作 아버지李書然 어머니卜惠淑 딸 南鮮英 徐月影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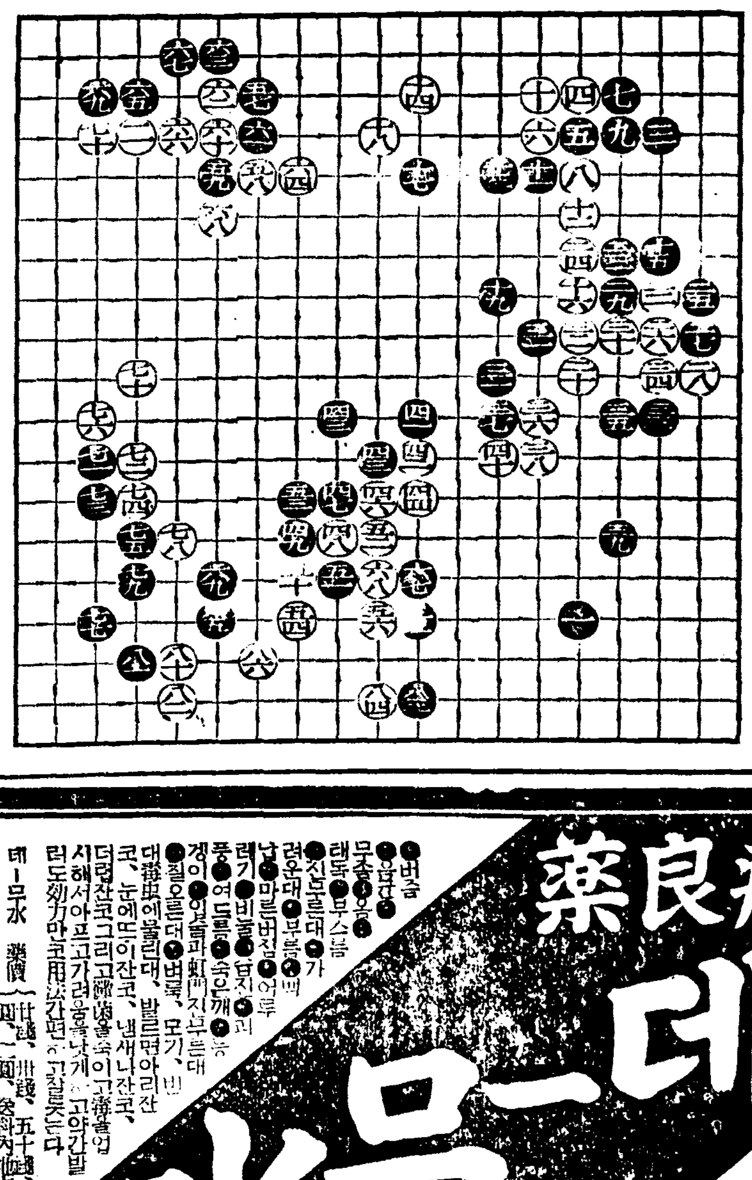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東)箏曲 [illegible] ◀同一〇時一〇分 中等教育講座(六三) 金鳳姬

四隅先據黑優勢

白軍行陣은蟻回篩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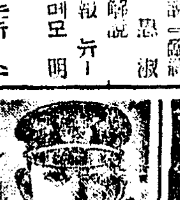
觀戰記 權秉郁

白 李鉉敏·黑 沈禍鎭



[illegible]

頭痛에 テーリン
テーリン의 効力은……
頭痛、感氣、현기증을 速히 解消할뿐아니라 常用하면 腦神經의 榮養을도와서 明朗하게하며 强心作用이 잇슴으로 心臟을 强하게 補하는 優秀한 効果가 잇슴니다.
一般解熱劑나 頭痛藥과 相違하야 全然 胃腸等을 害하지안는 理想的 頭腦良藥입니다.
其他 神經衰弱、不眠症 宿醉、感氣、船車之醉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製造元 東京市小石川區武島町三三 中村信治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八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北鮮代理店 淸津府浦項洞 株式會社 淸津新井藥房
全鮮各藥店에잇슴니다


警察官 講義合部全書
朝鮮及滿洲警察官志願者는本會의受驗準備合格을保證함(規則要急送)
非常時立身出世 警察을志望하는諸君 即速히入會하라
京城府舟橋町九四 鮮滿警察學會

皮膚病良藥 피부병良藥
데-무水는
◎殺菌作用으로
◎消毒作用으로
◎收斂作用으로
◎滑澤作用으로
데-무水
데-무水 藥價 一個 五十錢、一圓
全國到處의藥店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芝區 東京藥院
大阪市 大阪 東京藥院

劇團高協 巡回日程
十二日 十三日 南 初瀨座
十四日 十五日 吉州 吉州劇場
朴英鎬 作 春香傳
李雲芳 作 어머니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8日ヨリ12日マデ
ニュース 10·00 2·05 6·20
歷史 10·10 2·15 6·30
ニュース 12·05 4·10 8·
翼の人々 12·15 4·20 8·3
入場料50セン均一
9日(日曜日)ハ午前9時30分始映

若草東寶
6月9日より上映時間表
征戰の出 妹 8·30 12·30 3·35 6·50
獨逸の電擊作戰 10·40 1·45 4·50 8·10
ニュース
衛兵長隨院幡 11·00 2·05 5·10 8·30
『支那の夜』次週封切 十四日

京劇
七日ヨリ十四日マデ
女人峠
或の女
次週封切

大陸劇場
6月7日ヨリ上映時間表
任俠頃 10·30
若い貴き 12·04 3·33 7·10
君の淚 1·59 5·23 9·00

明治座
6月10日—16日上映時間表
10·00 1·00 3·56 7·00
皇國の妻 11·13 2·13 5·11 8·20
次週 美しき獵人 ターザンの

新富座
新しき出發 監督 李圭煥
幽靈帆船
御存じ東男

優美館
ヴァリエテの乙女
森の石松
城隍堂

桃花劇場
太平洋の翼
授業料

東洋劇場
春香傳 全
電光 二一五四番 四四九五番

和信映畫館
大日本ニュース 滿映ニュース
海の怪物
山と鬪ふ
笛の歌
野談漫談大會
唄へ河風
第一劇場